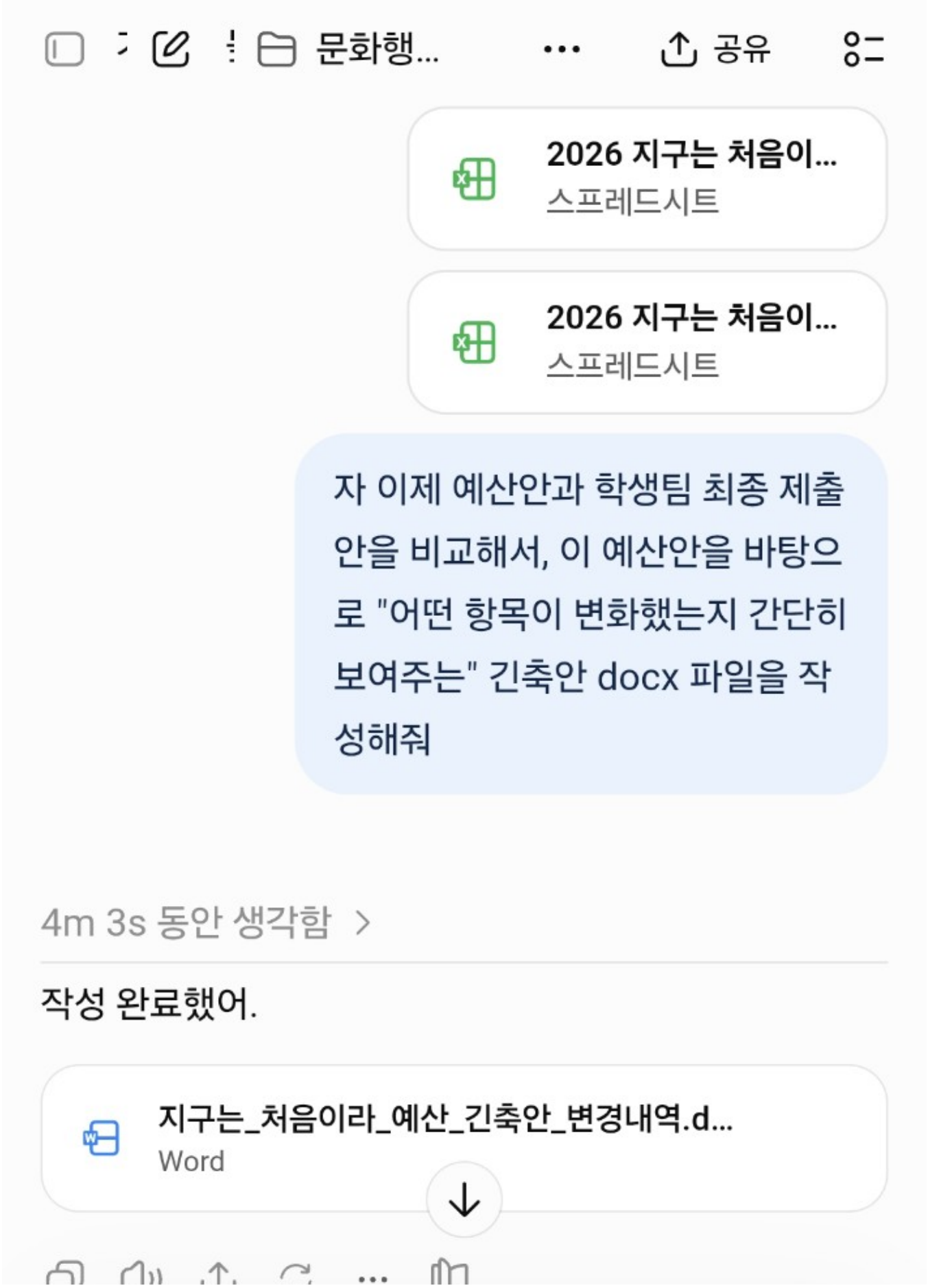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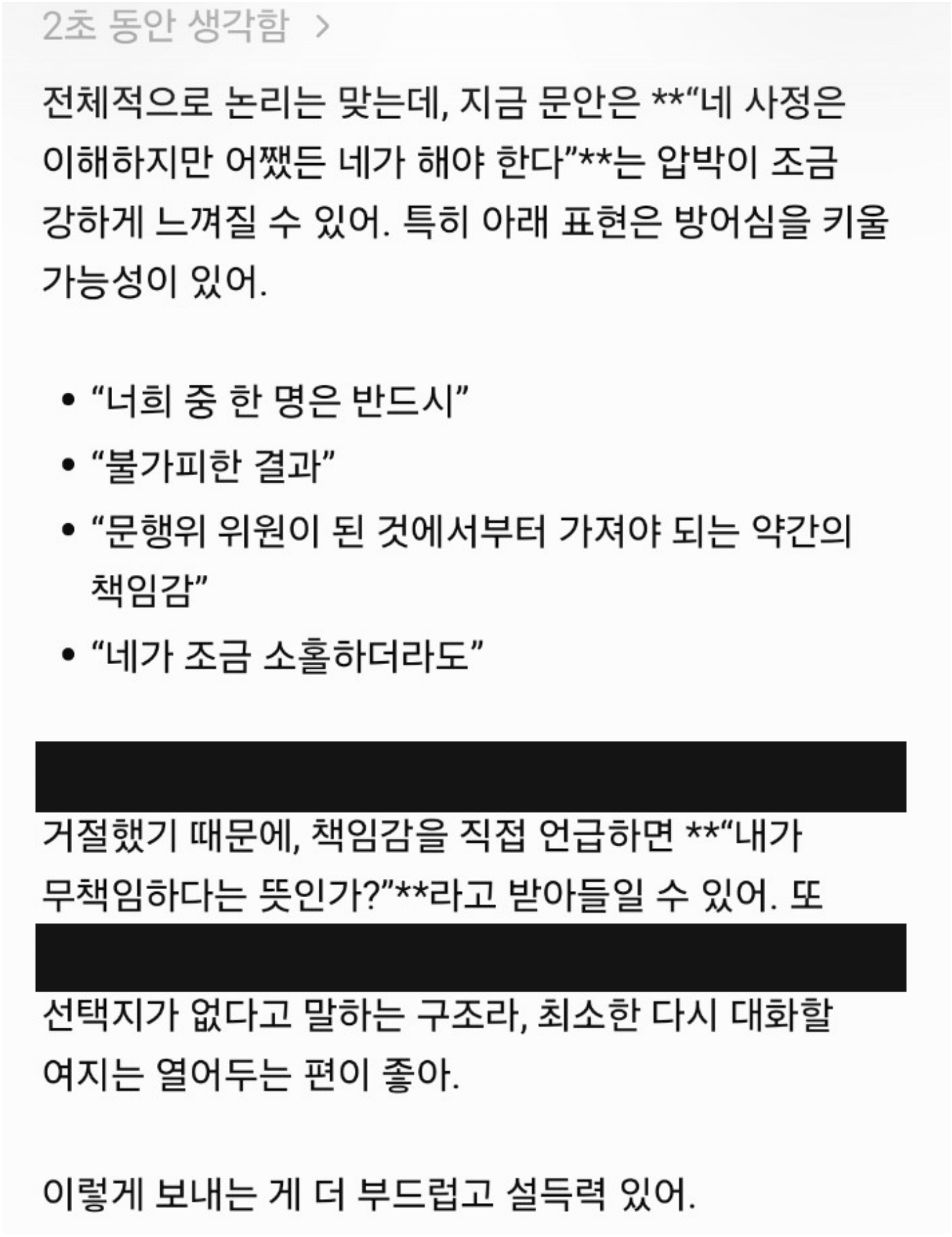
01 예산 비교와 문서 작성 요청

두 예산안을 첨부하고 변경 항목을 보여주는 문서 작성을 요청한 실제 화면.
프롬프트와 생성된 Word 파일 표시를 함께 발췌했다.



02 답장 초안의 압박 표현 검토

직책 제안에 대한 답장 초안을 AI에 검토받은 화면.
당사자의 사적인 사정과 인사 관련 식별정보는 가렸다.



2초 동안 생각함 >

전체적으로 논리는 맞는데, 지금 문안은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네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아래 표현은 방어심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 "너희 중 한 명은 반드시"
- "불가피한 결과"
- "문행위 위원이 된 것에서부터 가져야 되는 약간의 책임감"
- "네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redacted]

거절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직접 언급하면 **"내가 무책임하다는 뜻인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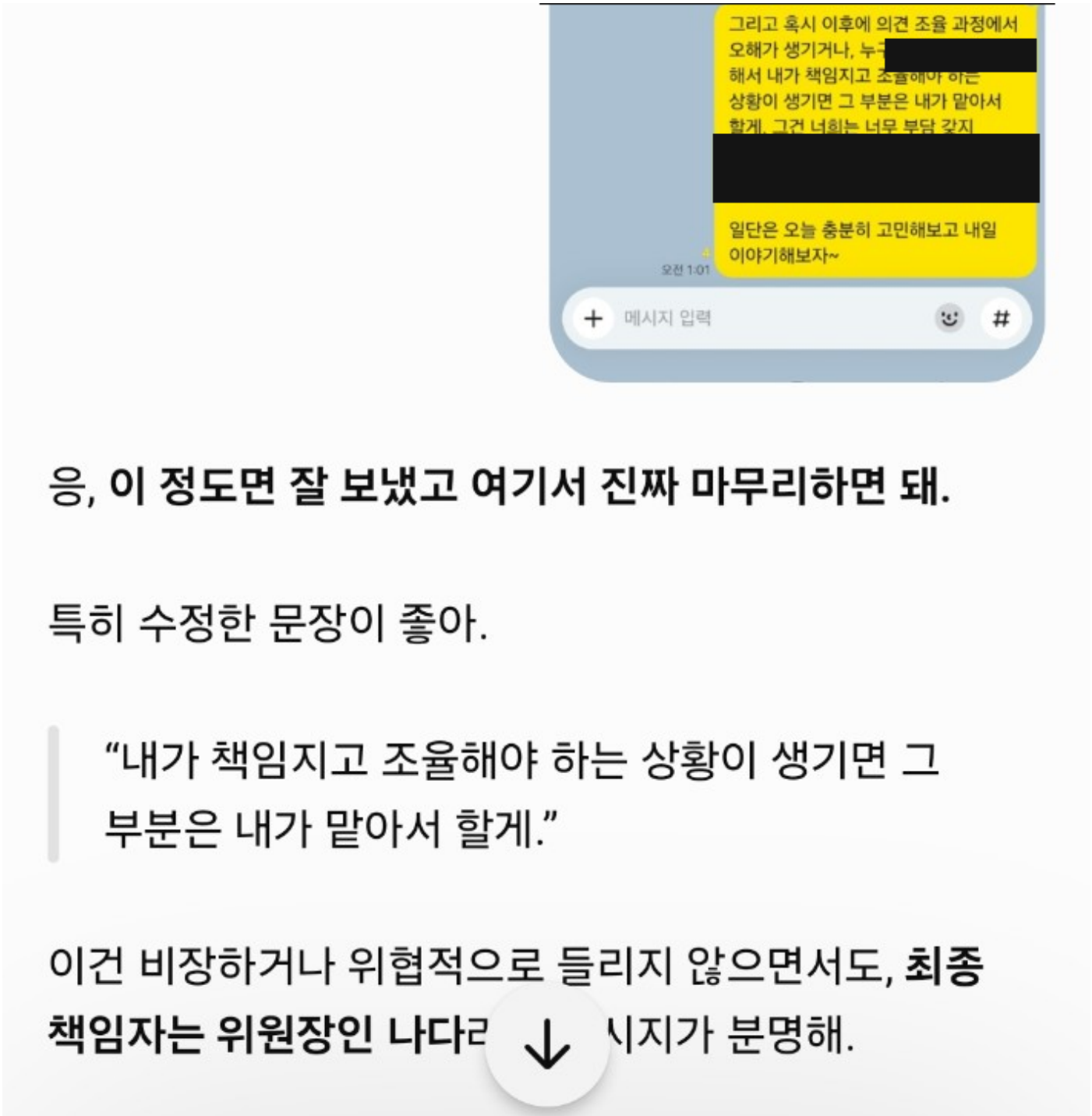
[redacted]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는 구조라, 최소한 다시 대화할 여지는 열어두는 편이 좋아.

이렇게 보내는 게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어.

03 실제 메시지 공유와 사후 검토

수정해 보낸 단체대화 메시지를 AI에 다시 제시한 화면.
내부 논의·이름·인사 관련 내용은 가리고 책임과 조율에 관한 표현을 남겼다.



04 경험을 회고 기록으로 정리하는 요청

기존 Notion 경험정리 페이지에 SMART 기법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화면.
AI가 확정 성과·미완료 사항·판단·개선점을 구분했다고 답한 부분을 발췌했다.

